

제2절 유교유적과 문화재*

순천의 유교유적은 지역의 선인들이 남긴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유교문화와 관련된 역사유적을 말하는 것으로, 향교나 서원·사우 그리고 누정(樓亭)·정려(旌閭)·재각(齋閣)·비(碑)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증평지』·『신증승평지』·『증평속지』에 게재된 유교유적으로서 1910년 이전에 건립되어 현존하는 것들을 수록하였으며, 현존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역사유적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가급적 취급하였다. 누정이나 재당(齋堂) 가운데 유교유적으로서 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재의 경우에는, 『증평속지』의 묘정재각(廟亭齋閣)에 올라 있는 것에 한하여 취급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묘정재각에 올라 있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 책의 잡저(雜著)에 관계 기문(記文)이 남아 있는 것은 함께 취급하였다. 다만 본서의 제1장에서 이미 기술한 서원·사우는¹⁾ 다루지 않았다. 유적에 대한 배열 순서는 건립연대순으로 하였고, 그 해설내용과 순서는 유적의 소재지·연혁 그리고 관련인물의 행적·관련자료의 순으로 소개하였다.

* 제2절은 양한택(梁漢鐸)·조원래(趙潑來) 집필임.

1) 순천의 서원·사우 가운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옥천서원(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4호), 옥계서원(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5호), 용강서원(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1호), 충렬사(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6호), 충무사(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48호) 등이다.